YG, 블랙핑크 제니·지수·리사 이적설에 "확정된 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5246?sid=106

[서울=뉴시스]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3.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다.21일 블랙핑크 멤버 중 로제만 기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하고 나머지 세 멤버 제니·지수·리사가 YG를 떠난다는 설이 나왔다. 세 멤버가 1년 중 일정기간 블랙핑크 활동은 같이 한다는 부연 설명이 더해졌다. 이에 대해 YG는 이날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데뷔 7주년(8월8일)을 넘긴 블랙핑크는 아직 YG와 재계약 확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소문이 퍼지고 있다. 블랙핑크는 최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마무리한 두 번째 월드 투어 '본 핑크'로 180만명을 끌어모은 톱 걸그룹이다. 하나의 월드투어로 180만명을 끌어모은 건 '방탄소년단'(BTS)의 '러브 유어 셀프'(205만명)를 잇는 K팝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날 방탄소년단이 소속사 하이브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맺고 2025년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기로 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더 커지고 있다.

YG, 블랙핑크 재계약설에 또다시 주가 하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914407?sid=106

블랙핑크 멤버들이 부둥켜안은 모습. 지수 개인 SNS 제공그룹 블랙핑크와 관련된 재계약설이 나올 때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21일 오후 4시 기준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전날보다 13.28% 하락한 6만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8일 계약 만료된 블랙핑크 쟤계약 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이 쏠려 있음을 방증한다.이날 매체 스포츠서울은 “로제가 YG와 재계약 합의에 도장을 찍었다. 나머지 세 멤버 제니, 지수, 리사는 YG가 아닌 곳으로 소속을 옮기되 1년 중 6개월은 블랙핑크 활동을 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이에 YG엔터테먼트는 스포츠경향에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 중이다”라고 즉각 부인했다. 지난 15일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졌을 때와 같은 입장이다.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투어 ‘본 핑크’의 피날레 공연을 진행했다.당시 멤버들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마지막’ ‘끝’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고 미래를 약속한 바 있다.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YG엔터, 블랙핑크 IP 가치 상승…목표가 8.3만→9.5만"-KB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3898?sid=101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KB증권은 20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블랙핑크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상승하면서 간접적 수익이 늘어난 데다 트레저의 팬덤 확장과 신규 아이돌 데뷔 등으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8만3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선화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로 글로벌 팬덤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블랙핑크의 IP 가치가 상승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활동 없이도 간접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증가했다"며 "데뷔 4년 차에 접어든 트레저의 본격적인 글로벌 팬덤 확장이 시작되고, 올 4분기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재계약과 전속계약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데,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IP 가치 상승으로 인해 블랙핑크 재계약에 따라 증가하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레저의 IP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니멈개런티(MG·출연료)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몬스터의 팬덤을 유추할 수 있는 유튜브 구독자 수(8월 말 기준 308만명) 및 조회수(4억3000만뷰)로 미뤄 봤을 때 베이비몬스터는 데뷔 직후 수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경우 유의미한 활동이 없었던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93억원으로, 블랙핑크 없이도 분기 약 100억원의 수익활동을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계약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를 커버할만큼 높아진 기초 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 3분기 와이지엔터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81억원, 영업이익은 222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2%, 영업이익은 42.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202억원)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원은 "블랙핑크의 MG가 상승하는 가운데 앵콜 공연 횟수가 증가했고, 트레저의 앨범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설에 YG 13% '뚝'…엔터株 '검은 목요일'[핫종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6260?sid=101

(종합)에스엠 3% 밀려…하이브 5% 하락  
  
  
  
블랙핑크 지수가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올 성수 컨셉스토어에서 열린 레이디 디올 셀러브레이션(LADY DIOR CELEBRATION) 전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간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 본색에 국내 증시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엔터주가 크게 출렁였다. YG엔터테인먼트(122870)는 대표 아이돌그룹 블랙핑크의 제니, 지수, 리사의 이적설이 전해지며 13% 밀렸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장중 한때 15%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21일 YG엔터테인먼트는 전일대비 1만600원(13.28%) 하락한 6만9200원에 마감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장중 15.41% 하락하면서 6만7500원까지 밀렸다.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종가 기준 6만원선을 기록한 건 지난 5월11일(6만6700원) 이후 4개월여만이다.이날 한 매체는 블랙핑크 멤버 로제만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제니, 지수, 리사는 각자 다른 소속사로 적을 옮기게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이들이 각자 소속사를 옮기지만 블랙핑크 활동은 계속해 이어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지난 밤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보인 탓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같은 소식은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20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점도표(금리인상 예정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5.6%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5.50%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한차례 더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방탄소년단 재계약' 호재를 전한 하이브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하이브는 전일대비 1만2500원(5.14%) 하락한 23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이브는 이날 장중 5.35% 밀리며 23만원선을 위협받았지만 하락폭을 소폭 회복하면서 23만원선을 지켰다. 하이브는 전날엔 0.82% 하락 마감한 바 있다.하이브는 전날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멤버들의 군 복무가 끝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에도 원 팀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에스엠(041510) 역시 전일대비 4600원(3.47%) 하락한 12만7900원에 마감했다. 에스엠은 보합세로 장을 마친 지난 19일을 제외하고 15일부터 이날까지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에스엠 주가는 최근 일주일새 8% 가량 하락했다.

블랙핑크, 전 세계 211만 팬들과 빛낸 '본 핑크' 투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0246?sid=106

블랙핑크 월드투어 현장 이미지 블랙핑크(지수·로제·리사·제니)가 전 세계 음악팬들과 함께 글로벌 전역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20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여 간 34개 도시·66회 차에 걸쳐 전개된 블랙핑크 '본 핑크(BORN PINK)' 투어는 서울 5만 5000·북미 54만·유럽 21만 5000·아시아 90만·오세아니아 5만·중동 4만을 합산해 K팝 걸그룹 최대 규모인 1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헤드라이너로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활약한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양일 합산 25만 명)과 영국 하이드파크(6만 5000명)까지 더하면 무려 211만 5000여 명의 음악팬들과 호흡한 셈이다. ◇ 블랙핑크가 쓴 최초의 기록들 데뷔 이래 최초의 길만 걸어온 블랙핑크는 이번에도 눈부신 성과를 써내려왔다. 북미에서는 전 세계 걸그룹 최초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LA 다저 스타디움에 입성했다.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멕시코 멕시코시티 포로솔에서 양일간 무대를 장식한 한국 걸그룹 역시 블랙핑크가 유일하다. 유럽 스타디움은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의 앙코르 공연을 통해 K팝 걸그룹 최초로 깃발을 꽂았다. 아시아·중동에서도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에서 K팝 아이돌 최초로 스타디움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태국 방콕 수파찰라사이 경기장·라차망칼라 내셔널 스타디움에서는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최다 관객을 동원한 K팝 아티스트로 이름을 새겼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에티하드 파크에서는 K팝 아티스트 최초·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BLVD 인터네셔널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 걸그룹 최초로 단독 공연을 펼쳐 중동 음악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한국에서는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까지 당당히 입성, 걸그룹 역사는 물론 K팝 시장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작성했다. ◇ 페스티벌로 확장된 '본 핑크' '본 핑크'는 단순히 공연에 국한된 것이 아닌 블랙핑크의 음악을 통해 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교류하고 즐기는 페스티벌 개념으로 확장됐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된 다양한 팝업 스토어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현지 팬들이 랜덤 플레이 댄스를 자발적으로 즐기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주요 도심은 블랙핑크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분홍빛 조명으로 수놓였다. 특히 영국 런던 O2 아레나는 공연장 최초로 외관 라이트닝을 밝혔으며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공연장 안팎으로 성별·연령·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블랙핑크의 글로벌 영향력이 '본 핑크'를 통해 입증된 순간이었다. ◇ YG·아티스트가 완성한 시너지 이번 투어의 성공에는 전 세계 블링크(팬덤명)에게 완벽한 공연을 선물하고자 했던 블랙핑크·YG 스태프들 그리고 국내외 최정상 스태프들의 땀방울이 숨어 있다. YG는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연의 본질에 집중, 프리 프로덕션 및 리허설 기간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소요했다'며 '무엇보다 아티스트가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상당수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빈틈없는 퍼포먼스·풍성한 밴드 사운드·압도적 규모의 연출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매 순간 최고의 무대가 탄생했다. 이에 "팝 음악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점점 허물어진다는 증거" "화려한 무대 연출부터 라이브 밴드의 훌륭한 앙상블까지 모든 것들이 관객에게 최고의 음악적 순간을 선사했다" "팀·개인 모든 방면에서의 성장을 보여준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 등 유력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블랙핑크 지수가 왜 강동원 '천박사'에서 나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5063?sid=106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스틸컷. CJ ENM 제공블랙핑크 지수를 비롯한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속 특별한 카메오들이 화제를 낳고 있다. 먼저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의 가짜 퇴마극이 펼쳐지는 평창동 박사장 부부에는 '기생충'의 이정은과 박명훈이 출연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기생충'에서 지하실 부부로 열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정은과 박명훈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등장, 명대사 '리스펙'을 외치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천박사를 의심하는 박사장 부부의 딸로는 배우 조이현이 활약하며 천박사와 인배(이동휘)의 퇴마극에 속아 넘어가는 일가족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이뿐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박정민과 글로벌 아티스트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지수가 특별한 연기 호흡을 맞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말 그대로 신들린 연기를 예고한 선녀무당 역의 박정민은 흡인력 있는 연기로 짧은 순간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천박사'를 통해 첫 영화 출연을 앞둔 지수는 생각지도 못한 역할로 관객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27일부터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블랙핑크는 왜 깜깜무소식이냐"…속타는 YG엔터 개미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4493?sid=101

"BTS는 계약만료 2년 앞두고 재계약 했는데…"'블랙핑크 재계약' 두고 속 끓는 주주들리사 열애설 불거질 때마다 주가 '뚝'  
  
  
  
사진=MTV VMA 공식 계정"옆동네 방탄소년단(BTS)은 전속계약 만료를 2년 남겨뒀는데도 전원 재계약했다더라. 정작 발표돼야 할 우리는 깜깜무소식인데…"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종목토론방)하이브(빅히트뮤직)와 BTS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포털 등 각종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엔터) 종목토론방에는 부러움 섞인 한탄이 이어졌다. 하이브(빅히트뮤직)가 소속 그룹인 BTS와 두 번째 재계약을 맺으면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주들 시름이 한층 깊어진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8분 현재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일 대비 3200원(4.01%) 밀린 7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지난 5월말 1분기 '깜짝 실적'으로 장중 9만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8만원선을 방어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재계약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출렁였다. 블랙핑크는 이미 지난달 7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다.블랙핑크의 '완전체 재계약' 여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리사다. 리사의 태국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게 곧 재계약 거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다. 열애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하락했다. 태국 방콕 매체는 지난 15일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 회장의 넷째 아들이자 럭셔리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의 최고경영자(CEO)인 프레데릭 아르노(Frederic Arnault)와 방콕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리사가 회사로부터 최근 500억대 계약금을 제안받았으나, 이런 재계약 조건을 거절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날 주가는 3% 가까이 빠졌다. 장중 한때는 무려 10% 넘게 밀리기도 했다.지난 7월 12일 복수의 매체들은 해외 매체 보도를 인용해 리사와 태그호이어 CEO의 열애설을 전했다. 주가는 열애설이 본격 보도된 12일부터 14일까지 9.13% 하락했다. 이날에는 '블랙핑크 멤버 중 리사만이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도도 나와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블랙핑크 리사. 사진=변성현 기자전속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는데도 재계약 소식이 없는 가운데 회사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자 투자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종목토론방에는 '하이브는 잔칫집인데 와이지만 초상집이다', '와이지는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불안해서 다 팔았다', '리사가 재계약 꼭 할 것이라 믿는다' 등 의견을 내놓았다.한편 증권가는 회사가 블랙핑크 위주의 '단일 아티스트' 구조가 해소되는 구간에 있다면서 이들 재계약 이슈에 매몰되지 않을 것을 권했다.이화정 KB증권 연구원은 "블랙핑크 재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주가는 이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본다"며 "블랙핑크 개별 그룹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라인업들의 성장 모멘텀(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트레저는 신보 초동 170만장으로 서프라이즈 기록하며 성장세를 증명했고 데뷔를 앞둔 베이비몬스터의 경우, 이미 강한 팬덤이 확보된 만큼 빠른 수익화가 기대된다"고 했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베이비몬스터가 양현석 총괄프로듀서의 복귀작인 만큼 기존 팝 스타일의 걸그룹 데뷔곡과 상반된 장르를 선뵐 것이라 본다. 기존 4세대 아이돌 팬덤 외의 팬층 흡수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트레저도 이번 활동에서 글로벌 팬덤을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 비활동기에도 회사의 하반기 수익성이 다소 방어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핑크 ‘본핑크’ 피날레 콘서트 MD 판매 확대…“현장 감동 간직하기 위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1/0003301992?sid=106

사진=YG플러스 제공블랙핑크 월드투어 ‘본핑크’(BORN PINK) 피날레 콘서트의 여운을 느낄 수 있게 됐다.21일 YG플러스는 “‘본핑크’ 서울 피날레 콘서트 MD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MD 판매 확대 이유에 대해 “콘서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던 깊은 감동을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많은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날레 콘서트 MD를 공식 온라인 판매채널과 오프라인 판매채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17종의 MD로 재구성된 이번 ‘백스테이지 MD’ 라인업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위버스샵과 YG SELECT 중문몰에서 온라인 판매가 열린다. YG PLACE 인사점과 더세임 합정점에서는 오프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콘서트 백스테이지 현장을 살린 포토존 및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한편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핑크’는 지난 17일 서울 피날레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월드투어로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대 규모인 1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K팝 역사에 기록을 세웠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블랙핑크 지수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월드투어 마무리, 영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3155?sid=106

지수 인스타그램(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1년 가까이 진행된 월드투어를 마무리한 소감을 전했다.20일 지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년 10월 15일, 16일에 시작한 블랙핑크 본 핑크 월드투어를 2023년 9월 16일, 17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멤버들과 콘서트장에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지수는 "처음 투어를 시작할 때 오랜 시간 못 본 블링크를 만날 수 있다는 두근거림 반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와 함께 즐겨준 여러 나라에 있는 모든 블링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이어 "투어 중간중간 코첼라, BST 등등 큰 공연들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처음으로 솔로 앨범도 나오고 저의 솔로곡으로 콘서트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라며 "이렇게 많은 추억이 남은 공연인 만큼 시작했던 서울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 준 우리 블랙핑크 멤버들한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덧붙였다.또한 "약 1년 동안 함께 해준 팀 블랙핑크 우리 모든 공연 스태프분들, 헤메스분들, 댄서분들 다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우리 블링크도 언제나 함께해 주고 블랙핑크를 행복하게 해 줘서 고마워요,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한편 블랙핑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여 간 34개 도시, 66회차에 걸쳐 전개된 블랙핑크 '본 핑크'(BORN PINK) 투어를 진행, K팝 걸그룹 최대 규모인 1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9억뷰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1246?sid=106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곡 '머니'(MONEY)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Exclusive Performance Video) 유튜브 조회 수가 9억건을 넘겼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사진은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9억뷰 돌파 이미지. 2023.9.19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블랙핑크 지수, 내가 선녀다 ('천박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2/0000629485?sid=106

'천박사' 27일 개봉[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천박사' 특별출연/사진 = CJ ENM'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등장만으로 스크린을 장악하는 배우들의 특별 출연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특별출연 배우들을 공개했다. 먼저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의 가짜 퇴마극이 펼쳐지는 평창동 박사장 부부에는 '기생충'의 이정은과 박명훈이 출연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천박사' 특별출연/사진 = CJ ENM   
'천박사' 특별출연/사진 = CJ ENM   
'천박사' 특별출연/사진 = CJ ENM'기생충'에서 지하실 부부로 열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정은과 박명훈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등장, 명대사 '리스펙'을 외치며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천박사를 의심하는 박사장 부부의 딸에는 배우 조이현이 활약하며 천박사와 인배(이동휘)의 퇴마극에 속아 넘어가는 일가족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박정민과 글로벌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멤버이자 배우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수가 특별한 연기 호흡을 맞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말 그대로 신들린 연기를 예고한 선녀무당 역의 박정민은 흡인력 있는 연기로 짧은 순간 관객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여기에 이번 영화를 통해 스크린 데뷔를 앞둔 지수는 관객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는 존재감의 캐릭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이처럼 역대급 특별출연 라인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믿보 배우들의 총출동으로 올 추석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오는 9월 27일 개봉.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블랙핑크, 전 세계 211만 팬들 만나는 대기록 [연예뉴스 HO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076894?sid=106

사진출처｜블랙핑크 트위터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여간 진행한 월드투어로 전 세계 211만 명의 팬들과 만나는 대기록을 썼다. 2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본 핑크’ 투어로 서울 5만5000명, 북미 54만 명, 유럽 21만5000명, 아시아 90만 명, 오세아니아 5만 명, 중동 4만 명을 합산해 케이(K)팝 걸그룹 최대 규모인 1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또 투어 중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전 세계 최대 음악페스티벌 중 하나인 미국 코첼라와 영국 하이드파크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서 각각 25만 명과 6만5000명의 글로벌 팬들과 호흡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11만5000여 명의 음악 팬들과 만난 셈이다.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블랙핑크, 콘서트 의상도 레전드…'4천만 원' 명품 드레스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3/0001270820?sid=106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의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콘서트에서도 명품 컬렉션을 착용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지난 16, 17일 양일간 서울에서 월드투어 'BORN PINK(본 핑크)'의 마지막 콘서트를 화려하게 펼친 블랙핑크는 무대에 걸맞 의상을 선보였다. 거대한 규모의 콘서트에 맞는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호평을 듣고 있다.블랙핑크 의상 중 상당수는 이들의 요구 사항과 치수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의상이었다.먼저 제니가 미공개 솔로곡 'You & Me' 퍼포먼스에서 입은 의상은 주하이르 무라드의 맞춤 드레스였다.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가 제작한 이 의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니의 의상을 설명했다. 주하이르 무라드는 "블랙핑크 피날레 쇼 무대에서 제니는 2023/24 가을-겨울 컬렉션의 복잡한 디자인의 실버 빛 블랙 패턴 부케가 돋보이는 미니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서 빛났다"라고 글을 남겼다.지수는 역시 디올의 의상을 착용했다. 17일 공연에서 지수가 착용한 디올 의상은 지수 만을 위해 제작된 꽃무늬 튜브톱이었다. 꽃무늬 튜브톱은 디올의 쿠튀르 가든스 컬렉션에서 나왔다.또, 지수가 솔로 무대 '꽃'과 'EYES ON ME'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영국 명품 브랜드 아드네빅의 제품으로 2만 5천 파운드(한화 약 4,120만 원) 짜리 드레스였다. 연한 핑크빛과 튜브톱에서 이어지는 레이스 장식이 지수와 딱 맞는 의상이었다.로제는 한국 브랜드 안 아르마디오의 드레스를 착용했다.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드레스로 로제는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났다.리사는 'MONEY' 솔로 무대를 위해 유에치 치라는 브랜드의 드레스를 착용했다.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디자이너 유에치 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리사가 콘서트에서 자신의 의상을 착용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지수, 주하이르 무라드 소셜미디어

블랙핑크 로제 재계약→멤버 3人 이적?...YG "확정 X, 협의 중"[공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5/0000144058?sid=106

21일 로제 재계약 및 지수-제니-리사 이적 관련 보도월드투어 피날레 콘서트에서도 재계약 관련 언급 X   
사진=YG엔터테인먼트(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블랙핑크(BLACKPINK) 재계약에 많은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제기된 로제의 재계약설에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2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블랙핑크(지수, 로제, 제니, 리사)의 재계약 방향을 두고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스포츠서울은 복수의 가요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에 합의하는 도장을 찍었다"며 "지수, 제니, 리사는 타 소속사로 이적하되 1년 중 6개월은 블랙핑크 활동을 하는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막판 협의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블랙핑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K팝 그룹이기에 이들의 재계약 소식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관심을 집중하는 양상이다.이 와중 지난 17일에는 1년간의 블랙핑크 월드투어 'BORN PINK'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공연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고, 멤버들이 재계약과 관련해 언급이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하지만 멤버들은 저마다 블링크(공식 팬덤 명)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공연 소감을 밝혔고, "앞으로도 저희는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와 같은 멤버들의 말은 블랙핑크의 미래를 그리는 땔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블랙핑크 지수→박정민까지…‘천박사’ 특별출연 라인업 미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914092?sid=106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설경의 비밀’ 스틸컷. CJ ENM 갈무리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특별 출연 라인업으로 화제다.‘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하 ‘천박사’)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개봉 전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올 추석 영화관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천박사’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특별출연 배우들을 공개했다.먼저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의 가짜 퇴마극이 펼쳐지는 평창동 박사장 부부에는 ‘기생충’의 이정은과 박명훈이 출연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기생충’에서 지하실 부부로 열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정은과 박명훈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등장, 명대사 “리스펙”을 외치며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여기에 천박사를 의심하는 박사장 부부의 딸에는 배우 조이현이 활약하며 천박사와 인배(이동휘)의 퇴마극에 속아 넘어가는 일가족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설경의 비밀’ 스틸컷. CJ ENM 갈무리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박정민과 그룹 블랙핑크이자 배우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지수가 특별한 연기 호흡을 맞춰 관객들의 이목을 쏠리게 한다.신들린 연기를 예고한 선녀무당 역의 박정민은 흡인력 있는 연기로 짧은 순간 관객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통해 첫 스크린 출연을 앞둔 지수는 관객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는 존재감의 캐릭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앞서 김성식 감독은 ‘선녀’ 역할로 깜짝 출연한 지수에 대해 “선녀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찾다가 지수 씨를 생각했다. 팬심 50%와 운 50%가 작용한 캐스팅이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 바 있다.한편 ‘천박사 퇴마 연구소’는 오는 27일 개봉한다.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9억뷰…팀 내 8번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6349?sid=106

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곡 '머니'(MONEY)의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Exclusive Performance Video) 유튜브 조회 수가 9억뷰를 기록했다.   
블랙핑크 리사.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1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영상이 이날 오전 3시 25분께 9억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공개 이후 2년 만으로 블랙핑크 자체 통산 여덟 번째 9억뷰 영상이 됐다.'머니'는 세련된 힙합 사운드에 자신감 넘치는 랩 가사가 특징인 곡으로 리사의 첫 솔로 싱글 '라리사'(LALISA)의 수록곡이다.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세계 각국 주요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각각 진입했고, 66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도 올랐다.YG는 "리사는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닌 퍼포먼스 비디오만으로 폭발적인 조회 수를 자랑하며 세계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블랙핑크는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콘서트를 끝으로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 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등에 걸친 공연에서 블랙핑크는 약 18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현재 멤버들은 YG와 재계약 여부 공개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 지수, 월드 투어 대장정 마무리…“행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96/0000655672?sid=106

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월드 투어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20일 지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10월 15일, 16일에 시작한 ‘BORN PINK’ WORLD TOUR를 2023년 9월 16일, 17일로 막을 내리게 됐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처음 투어를 시작할 때 오랜 시간 못 본 블링크를 만날 수 있다는 두근거림 반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라며 “저희와 함께 즐겨준 여러 나라에 있는 모든 블링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투어에 함께한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투어 중간중간 코첼라, BST 등등 큰 공연들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며 “처음으로 솔로 앨범도 나오고 저의 솔로곡으로 콘서트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지수는 “이렇게 많은 추억이 남은 공연인 만큼 시작했던 서울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 준 우리 블랙핑크 멤버들한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멤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지수 인스타그램 또 그는 “약 1년 동안 함께 해준 TEAM BLACKPINK 우리 모든 공연 스태프분들, 헤메스분들, 댄서분들 다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블링크 언제나 함께해 주고 블랙핑크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해부터 개최한 월드 투어 ‘BORN PINK’의 피날레 공연을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기생충' 부부·박정민·블랙핑크 지수, '천박사' 다채로운 특별출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1060?sid=106

27일 개봉[데일리안 = 류지윤 기자]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등장만으로 스크린을 장악하는 배우들의 특별 출연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 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특별출연 배우들을 공개했다. 먼저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의 가짜 퇴마극이 펼쳐지는 평창동 박사장 부부에는 '기생충'의 이정은과 박명훈이 출연했다.'기생충'에서 지하실 부부로 열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정은과 박명훈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등장, 명대사 "리스펙"을 외치며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여기에 천박사를 의심하는 박사장 부부의 딸에는 배우 조이현이 활약하며 천박사와 인배(이동휘 분)의 퇴마극에 속아 넘어가는 일가족을 그렸다.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배우 박정민과 블랙핑크의 지수가 특별한 연기 호흡을 맞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말 그대로 신들린 연기를 예고한 선녀무당 역의 박정민은 흡인력 있는 연기로 짧은 순간 관객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릴 것이다.여기에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통해 첫 영화 출연을 앞둔 지수는 관객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는 캐릭터로 등장했다.한편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27일 개봉한다.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9억 뷰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1/0003301576?sid=106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글로벌 파급력을 증명했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리사의 솔로곡 ‘머니’(MONEY)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19일 오전 유튜브 조회수 9억 뷰를 넘어섰다.이로써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9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가진 영상을 총 8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뚜두뚜두’,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붐바야’, ‘마지막처럼’,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와 안무 영상, 제니의 솔로곡 ‘솔로’(SOLO)가 9억 뷰를 달성한 바 있다.리사는 뮤직비디오가 아닌 안무 영상만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자랑하며 세계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 ‘하우 유 라이크 댓’에 이어 두 번째로 9억 뷰를 달성한 퍼포먼스 비디오인 만큼 앞으로의 신기록 행진도 주목된다.‘머니’는 리사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라리사’(LALISA) 수록곡이다. 발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글로벌 차트에서 역주행하는 이례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총 66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을 꿰찼으며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5위에 올랐다. 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 미국 빌보드 ‘핫 100’,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 각각 8주, 2주, 3주 연속 차트인했다.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16~17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한 콘서트를 끝으로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투어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를 성료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로”…180만명 열광시킨 월드투어 마침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8115?sid=103

11개월간 34개도시 180만 세계팬 홀리고 재계약 논란속 고척돔서 월드투어 피날레“앞으로도 블랙핑크 될것” 원팀 강조해  
  
  
  
 K팝 그룹 블랙핑크(왼쪽부터 제니·지수·리사·로제)가 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11개월의 월드투어 ‘본 핑크’ 마지막 공연을 열고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두 번째 월드투어 마지막 공연. 멤버 제니가 이렇게 말하자 관객석에서 유독 큰 환호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지난달 데뷔 7주년 기념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여부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멤버들이 직접 ‘원팀’ 기조 만큼은 못박은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멤버 재계약 불발설 등 루머도 쏟아지고 있지만, YG엔터 관계자는 “재계약과 향후 활동 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멤버들은 무대 위에선 계약 여부 등에 상관없이 한층 성장한 퍼포먼스 역량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뽐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KSPO돔에서 시작해 11개월간 이어진 월드투어 대장정의 마무리였다. 블랙핑크는 북미·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 등 총 34개 도시를 돌며 총 66회차 공연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지난 7월엔 프랑스 파리에서 ‘K팝 걸그룹 최초 유럽 스타디움 공연장 입성’이란 기록을 세웠고, 8월 미국 뉴저지·라스베이거스·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수만 명 규모 대형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이 기간 동원한 관객 수는 전 세계 180만명에 달했다.이날 공연 역시 매진이었다. 실내 공연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고척돔에 하루당 1만7500명, 양일간 총 3만5000명의 관객이 몰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일본·동남아 등 여러 나라에서 팬들이 총집결했다. 멤버 제니와 로제는 종종 눈물을 삼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의 서울 피날레 공연을 성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사진은 블랙핑크 서울 피날레 공연 모습. [사진 출처=YG엔터테인먼트]로제는 “이렇게 많은 분이 마지막 공연까지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이지만 영원히 이럴 것만 같다는 느낌만 든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제니는 “말이 1년이지 정말 다사다난했다. 정말 많은 비행기에서의 시간과 이동이 있었다”며 “그래도 멤버 넷이 서로를 이끌어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리사는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에 써왔다는 팬들에 대한 짧은 편지글을 읽었다. 그는 “블링크(팬클럽명)와 함께여서 다양하고 대단한 공연장에서 무대를 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블링크, 너무나 사랑하고 저의 20대를 함께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수도 “아무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전했다.이날 공연은 관객 입장이 지연되며 시작 시각도 20분가량 뒤로 밀렸지만, 이후엔 사고 없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곡 반주를 밴드 세션이 라이브로 했고, 맞춤형 편곡과 레이저·폭죽을 활용한 다양한 무대 연출로 현장 열기를 끌어올렸다. 4명의 멤버 중에서도 특히 로제는 반주를 뚫고 나오는 큰 성량을 자랑하며 라이브 현장감을 살렸다.  
  
  
  
 16~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11개월 동안의 월드투어 ‘본 핑크’ 피날레 공연을 연 K팝 그룹 블랙핑크. 지난 4월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첫선을 보인 한국 기와 무대를 그대로 재현했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또 하나의 관전 요소는 한옥 기와를 본뜬 무대 조명 장치였다. 앞서 지난 4월 세계 최대 음악 축제로 꼽히는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올랐을 때 선보인 것을 국내에서 처음 재현했다. 멤버들은 ‘핑크 베놈’ ‘하우 유 라이크 댓’ ‘휘파람’ ‘킬 디스 러브’ ‘불장난’ 등 수많은 히트곡 퍼포먼스를 전통적 미를 뽐내는 기와 모양 무대 배경으로 선보였다. 곡 ‘러브식 걸스’ ‘셧 다운’ ‘뚜두뚜두’ 등 글로벌 히트곡에선 여지없이 떼창이 나왔다.개인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제니는 곡 ‘솔로’에서 넓은 무대에 댄서 없이 홀로 올라 춤을 췄다. 곧이어 미발표곡 ‘유 앤 미’에선 남성 댄서와 듀엣 댄스를 소화했는데, 배경을 가득 채운 보름달 위로 실루엣만 보이게끔 해 몽환적인 느낌을 배가했다.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무대는 클라이맥스에서 가장 화려한 군무를 추는 연출법을 뒤집고, 한 박자 적막 후에 땅에 누워 춤을 추는 연출로 더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서울 공연에서 해외 가수의 곡을 커버했던 지수는 이번엔 자신의 발표곡 ‘꽃’으로 개인 무대를 꾸몄고, 리사는 금색과 돈 모양 종이가 흩날리는 가운데 ‘머니’를 불러 랩·춤 실력을 뽐냈다.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성료 (서울=연합뉴스) 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의 서울 피날레 공연을 성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사진은 팬들과 기념 촬영하는 그룹 블랙핑크. [사진 출처=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리사, 막강 글로벌 영향력 입증…‘머니’ 퍼포먼스 MV 9억뷰 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913877?sid=106

블랙핑크 ‘라리사’ 앨범 포스터. YG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글로벌 영향력이 수치로 드러났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9일 리사의 솔로곡 ‘머니(MONEY)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9억 건을 넘겼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3시 25분경 9억 조회수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공개 이후 2년 만에 이룬 쾌거로, 블랙핑크 자체 통산 여덟 번째 9억뷰 영상이 됐다. 리사는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닌 안무 영상만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자랑하며 세계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머니’는 세련된 힙합 사운드와 스웨그 넘치는 랩 가사가 특징인 곡이다. 리사의 첫 솔로 앨범 ‘라리사(LALISA)’ 수록곡으로 발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세계 각국 주요 차트서 역주행하는 이례적 돌풍을 일으켰다.해당 노래는 총 66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을 꿰찼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서는 5위까지 올랐다. 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과 미국 빌보드 핫100 그리고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 각각 8주, 2주, 3주 연속 차트인하며 ‘K팝 여성 솔로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블랙핑크 리사 ‘머니’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 9억 조회수 돌파 기념 포스터. YG엔터테인먼트 제공이에 YG는 “리사는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닌 퍼포먼스 비디오만으로 폭발적인 조회 수를 자랑하며 세계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콘서트를 끝으로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 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블랙핑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등에 걸쳐 약 18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리사를 포함한 멤버들은 YG와 재계약 여부 공개를 앞두고 있다.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천박사' 감독 "블랙핑크 지수 특별출연, 선녀 이미지에 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0166?sid=106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김성식 감독과 배우 강동원, 이동휘, 이솜, 박소이, 김종수, 허준호가 참석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김성식 감독이 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특별출연 비하인드를 언급했다. 1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김성식 감독)' 시사회가 진행됐다. 27일 개봉하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극 초반 김성식 감독과 '기생충'으로 인연을 맺은 배우 이정은, 박명훈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출연, 우정출연진의 활약이 눈에 띈다. 지수 역시 극 중반 선녀 역으로 특별출연해 반가움을 더한다.   
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열린 한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에 대해 김성식 감독은 "선녀 이미지와 잘 맞을 분들을 찾다가 지수 씨가 생각났다. JTBC '설강화' 보고 생각했다. 지수 씨의 특별출연은 팬심이 50%, 운이 50%인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정은, 박명훈 특별출연에 대해선 "'기생충' 조감독을 하면서 희망사항이었다. 이들이 행복해지면 어떤 상황일까 생각했다. 봉준호 감독님께 허락 받았는데 기뻐하셨다"며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께 조언을 들었던 건, 봉준호 감독님과는 영화 이야기 거의 안하고 토트넘 이야기 한다. 박찬욱 감독님도 잘 만들란 이야기밖에 못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블랙핑크 리사, '머니' 안무영상으로 9억뷰 달성…글로벌 인기 행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8293?sid=106

사진제공=YG(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MONEY) 안무 영상이 9억뷰를 돌파했다.19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리사의 솔로곡 '머니'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Exclusive Performance Video)가 이날 오전 3시25분께 유튜브 조회수 9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지 2년여 만에 통산 8번째로 9억뷰 영상 대열에 합류한 것.이로써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9억뷰 이상 영상을 총 8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뚜두뚜두'(21억뷰),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18억뷰), '붐바야'(16억뷰), '마지막처럼'(13억뷰),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12억뷰)와 안무 영상(14억뷰), 제니 솔로곡 '솔로'(SOLO, 9.5억뷰)가 같은 조회수를 달성했었다.리사는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닌 안무 영상만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자랑하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하우 유 라이크 댓'에 이어 두 번째로 9억뷰를 달성한 안무 영상인 만큼 앞으로의 신기록 행진도 주목된다.'머니'는 세련된 힙합 사운드와 스웨그 넘치는 랩 가사가 특징인 곡이다. 리사의 첫 솔로 앨범 '라리사'(LALISA)의 수록곡으로 발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세계 각국 주요 차트서 역주행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콘서트를 끝으로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 투어를 성료했다.